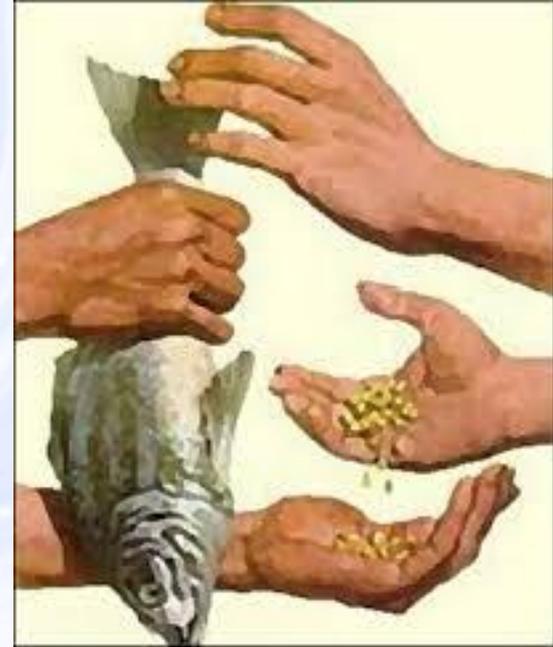


강인한 글로벌 사회적경제 구축: 공정무역 우수사례

세계공정무역기구 아시아지부(WFTO Asia)

사무국장 라모나 라모스(Ramona Ramos)





무역 그 이상의 것: 공정 무역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정무역에 동참

<http://socialeconomyhub.ca/socialeconomybookletenfinal.pdf>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존중

을 바탕으로 한

무역 파트너십



무역 파트너십: 공정무역
대화과 투명성, 존중을 바탕으로

무역 그 이상의 것: 공정무역

- 세계 무역정의(Trade Justice)의 확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
- 기존 무역의 규칙과 관행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
- 성공적인 기업은 사람과 지구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줌



무역 파트너십: 공정무역
대화와 투명성,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무역 운동

1940년, 북반구 경제시장에서 종교단체가 공정무역 제품을 상업화하기 시작. 십자수 뜨기로 만든 삼베 수공예품)

우리는 공정무역의 발전과정을 통해
사람과 지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하였다.



무역 파트너십: 공정무역
대화와 투명성,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무역 운동 개요

1946/1949 Self Help Crafts of the World(지금의 텐싸우전빌리지:TEN THOUSAND VILLAGES)와 **SERRV International**은 개발도상국에서 십자수 뜨기로 만든 삼베 수공예품을 교회와 박람회에서 팔기 시작했다.

1960 현재의 공정무역 운동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1965 “판매로 돕기”라는 기치를 내세운, 최초의 대안무역기구인 옥스팜(OXFAM GB)이 영국에서 탄생

1968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원조가 아닌 무역을!(Trade Not Aid!)”이라는 슬로건이 미국의 거대 언론사인 홀 어스 카탈로그(Whole Earth Catalogue)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는 개발도상국과의 공정무역 관계 구축을 강조한 슬로건으로써 기업 소매와 백화점 판매 목적이 아닌, 자립적 생산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전문 상인, 장인, 과학자를 직접 연계해주는 것이었다.



무역 파트너십: 공정무역
대화과 투명성,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무역 운동 개요

1988 최초의 공정무역 인증,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네덜란드) 탄생



1989 세계공정무역기구(WFTO)의 전신, 국제공정무역연합(IFAT) 설립. 공정무역 생산자 협동조합과 협의회, 수출 마케팅회사, 수입업체, 소매업자, 국가 및 지방 공정무역 네트워크, 공정무역 지원기관이 모여 만든 글로벌 연합체이다.





무역 파트너십: 공정무역
대화과 투명성,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무역 운동 개요

1990

EFTA
European Fair Trade Association

유럽 공정 무역 연합 (EFTA) 설립. 유럽 대안무역단체의 네트워크로서, 공정무역을 촉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생산자 단체 400개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1990 아시아태평양 국가 내 최초의 공정무역단체 네트워크인 방글라데시 에코다 (the ECOTA Fair Trade Forum in Bangladesh) 설립. 이를 시작으로 1993년 네팔의 Fair Trade Group Nepal, 2000년 인도의 FTFI(Fair Trade Forum India), 2007년 인도네시아의 Forum Fair Trade Indonesia, 2009년 스리랑카의 세계 공정무역기구 스리랑카 지부(WFTO Sri Lanka Chapter), 2010년 라오스의 Fair Trade Laos, 홍콩의 Fair Trade HongKong Foundation, 2012년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등 국가별 공정무역단체 네트워크 설립.

현재 다른 남부 지역 국가들도 공정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르완다의 RWAFAFAT, 스와질란드(Swaziland)의 SWIFT,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세계 공정무역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부, 탄자니아의 TANFAT, 우간다의 UGAFAT .



무역 파트너십: 공정무역
대화와 투명성,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무역 운동 개요

1994 ★ NEWS!

유럽 13개국, 15개 월드숍들의 연합체인

유럽월드숍네트워크(Network of European World Shops, NEWS) 설립.

캐나다와 미국의 공정무역 도매업체, 수입업체, 소매업체 네트워크인
공정무역연맹(FTF:Fair Trade Federation) 설립.

1997 국제 공정무역인증기구 (Fairtrade Labeling Organization, FLO)



설립. 공정무역 기준을 세우고, 취약한 생산자를 지원 및 인증하며,
공정무역 메시지를 공정무역 운동에 맞게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된 산하기구이다.

1998 공정무역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통일하고,
공정무역 모니터링 시스템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공정무역을 정치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와
국제공정무역연합(IFAT),
유럽월드숍네트워크(NEWS), 그리고
유럽공정무역연합(EFTA)이 모여 비공식
연합체 파인(FINE)을 설립함.



TransFair USA

미국 공정무역
제품의 제3자
인증기구인
TransFair USA
설립.



무역 파트너십: 공정무역
대화과 투명성,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무역 운동 개요

2001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남반구 지역 내 최초의 공정무역 생산자와 마케팅개발기관의 공정무역 컨소시엄인 **아시아공정무역포럼(AFTF)**(현 세계공정무역기구 아시아 지부) 설립.

이후, 아프리카 지역에 **COFTA in Africa**(현 WFTO Africa)와 남미지역에 **IFAT LA** (현 WFTO Latin America), **WFTO Euroup**, **WFTO Pacific Rim** 설립.

이와 같이 공정무역 단체들은 각 지역의 공정무역 강화를 위해 더 큰 목소리와 공동의 행동을 추구하는 지역 컨소시엄을 구축해왔다.

보다 정의로운 세계 무역을 위해..

공정무역의 효과



독일 게파(GEPA), 유럽 최대 대안무역단체

매출액 5,840만 유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40여 개국, 190개의 협동조합과 마케팅 단체와 거래

생산범위: 식료품, 수공예품, 직물

제품은 독일과 주변국의 800개 월드숍과 6000개 행동단체, 수많은 슈퍼마켓, 유기농식료품가게, 기업 구내식당, 교육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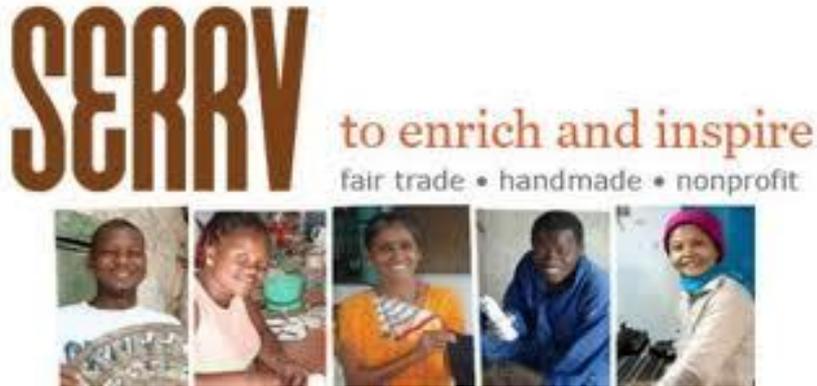
www.tenthousandvillages.com



텐싸우전빌리지(TEN THOUSAND VILLAGES)의 기프트샵은 38개국, 수십만명의 취약한 수공예 장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전미 390개 소매 아울렛 매장의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개발도상국의 공급 체인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보다 정의로운 세계 무역을 위해..

공정무역의 효과



미국에 위치한 공정무역단체 SERRV는 전미 고객과 자원봉사자와 36개 저개발국의 수천만 장인을 연계해주는 공정무역 네트워크로, 현재 가치가 900만 달러에 이른다. SERRV는 공정무역 제품 수입업체 중 성공 사례로 꼽힌다.

www.serrv.org/category/artisans-farmers

이탈리아의 CTM Altromercato는 118개 공정무역 협동조합과 수공예장인의 네트워크를 가진 단체로서 300개의 월드숍을 관리한다. Altromercato에는 근로자 400명과 자원봉사자 6,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www.altromercato.it

2007 공정무역 통계자료집은 네덜란드 월드숍연합을 대표해 잔-마리 크리에(Jean-Marie Krier)가 만들었다. 네덜란드 월드숍연합은 네덜란드 재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설문 조사는 19개 소비지 국가의 수입업자 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19개국 12,439개 슈퍼마켓



- 독일: 30,000
- 이탈리아: 4,150
- 네덜란드: 4,000
- 프랑스: 7,500
- 스위스: 2,500
- 벨기에: 0
- 영국: 0
- 스페인: 0
- 오스트리아: 5,000
- 스웨덴: 2,500
- 핀란드: 3,000
- 덴마크: 2,700
- 룩셈부르크: 160
- 아일랜드: 350
- 노르웨이: 5,600



슈퍼마켓 40,000개



슈퍼마켓 3,820

호주와 뉴질랜드: 1,000 Supermarkets
캐나다: 0

기존 무역 규칙과 관행의 변화 필요성: 2015년 이후의 공정무역 캠페인 (Fair Trade Beyond 2015)

www.fairtrade-advocacy.org

이 캠페인은 기존 무역의 규칙과 관행을 개혁해 무역이 권익 신장의 도구이자, 빈곤 타파의 핵심 추진 요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되도록 하자는 외침이다. 또한, 자기자본과 책임감, 상호의존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이해관계자 파트너십과 공정무역이 진정으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요구이다.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구현하고 정부와 지방당국, 기업, 시민 간 공정무역을 발전을 위한 모범경영 파트너십으로써 지원하는 새로운 글로벌 협약을 촉구하는 것이다.



Photos of Mayors of Poznan, Rio de Janeiro, Seoul

브라질과 한국, 프랑스 스페인 등 전세계 총리 200명과 지방자치단체장 120명,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2015년 이후의 공정무역” 선언문에 서명했다.

기존 무역 규칙과 관행의 변화 필요성

정책 개혁 이니셔티브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통한 빈곤타파(PReSEnt: Poverty Reduction through Social Entrepreneurship)라는 이름의 ‘필리핀 사회적기업법 HB1331’는 공정무역과 공정무역단체, 공정무역 원칙, 공정무역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적기업(SE)의 정의를 담고 있다. 이는 WFTO 필리핀 지부와 WFTO 아시아 지부와 함께 필리핀 사회적 기업이 공동으로 내놓은 이니셔티브이다.

www.scribd.com/doc/153068492/Present-Bill-16th-Congress

공정무역과 무역정의대변하기

공정무역옹호기구(FTAO)는 FLO와 EFTA, WFTO 유럽지부가 공동으로 만든 이니셔티브로, FTAO와 공정무역 네트워크, 네트워크 회원의 소통 능력 강화와, EU 기관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공정무역과 무역 정의를 지지하는 EU 정책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ww.fairtrade-advocacy.org



사람과 지구를 위한 공정무역: 성공적인 공정무역 기업의 우수 사례(모델)



스리랑카의 공정무역단체 PODIE(People's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Import and)는 농부들이 탱크 중 하나를 수리해 우기에 빗물을 저장하여 건기에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30년간 PODIE는 부가가치가 높은 향신료를 수출하는 니곰보(Negombo)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사람과 지구를 위한 공정무역: 성공적인 공정무역 기업의 우수 사례(모델)

네팔: 네팔 공정무역단체 마하구띠(Mahaguthi)는 1927년부터 여성, 과부, 낮은 카스트 계급 사람들과 함께 양심적인 공예품을 만든다. Mahaguthi는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필리핀: 살라이(Salay) 지역 공동체는 야생초를 사용한 수제 종이 생산 교육을 받았다. 이는 이 지역사회의 생계 수단이다. SHAPPI는 살라이 제품의 마케팅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http://www.tenthousandvillages.com/salay>

인도 공정무역단체 아시시 의복(Assisi Garments)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지원받는 환경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한다. 여성들은 공정한 임금을 받는다. 고용된 지 3~5년이 되면, 저축도 하고 보너스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자신만의 재단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인도: 아시시 의복(Assisi Garments) 남인도 지부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사람과 지구를 위한 공정무역: 성공적인 공정무역 기업의 우수 사례(모델)



인도 뭄바이 북부 외곽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CH (Creative Handicrafts)의 주요 프로젝트는

슬럼가와 부족 거주지역의 취약계층 여성에게 일감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CH 여성의복협동조합의 여성들이 아름다운 의류과 가방, 침대커버, 봉제완구, 섬유로 된 유틸리티를 생산한다. 또 다른 CH 협동조합인, 아슬리 식품(Asli Food)의 여성들은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 회사에 납품한다.

www.creativehandicrafts.org



전 세계가 상업적 이익만을 쫓는 이 때,
CH는 소수의 백만장자가 아니라 다수의
생산자들을 위한 공정무역 운동으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사람과 지구를 위한 공정무역: 성공적인 공정무역 기업 우수 사례(모델)



빈디아(Bindia)는 CH의 수혜자 중 한 명이다. 빈디아는 행복한 가정에서 지내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여성이다. 현재 CH 이사인 그는 협동조합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빈디아는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남편 월급만으로는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진학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CH에 입사했다. 후원제도 역시 빈디아의 아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빈디아의 딸은 현재 발 비카스 켄드라(Bal Vikas Kendra)의 아동발달센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CH는 아시아 최초로 리워드 아시아(REWARD ASIA)로부터 “2012 공예품 부문 훌륭한 공정무역단체상”을 받았다. (WFTO 아시아 지부가 만든 상으로, 아시아 지역 내 자격 있는 공정무역단체를 파악해 수상하는 격년제 행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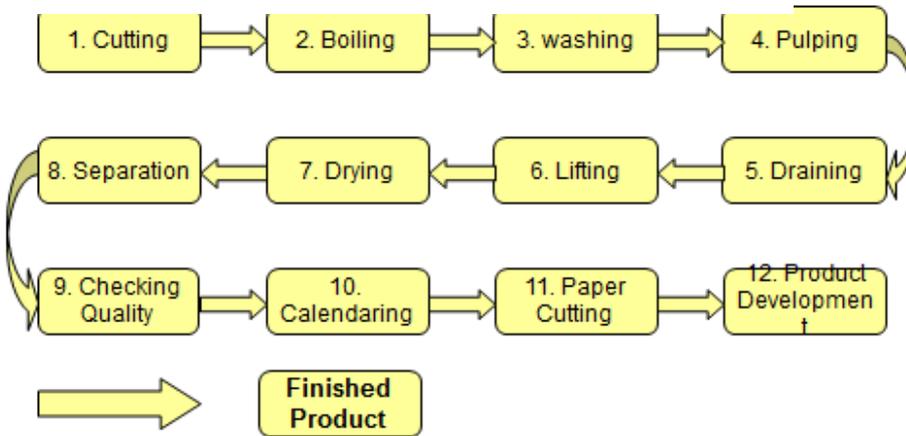
사람들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공정무역



WFTO 아시아 지부 회원



수공예 종이 만드는 과정



자연을 의미하는 방글라데시 공정무역단체 Prokritee는 지방에 거주하는 빈곤층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수입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과부나 이혼녀, 가장을 돕는다.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Prokritee는 여성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그 여성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제 그들은 빈곤과 절망 대신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종이 제품 제작과 도안에 관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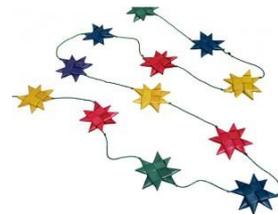
사람들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공정무역



슈네호란 할더(Snehoran Halder)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학교를 10살까지만 다녔다. 슈네호란은 학교를 그만두고 엄마를 도와 청소와 요리, 어린 여동생 5명을 돌보고 있었다. 16살에 부모님이 이웃 농부와 결혼하도록 주선하셨다. 이제 슈네호란은 30살이고 아들 셋을 키우고 있다. 슈네호란의 남편은 병이 나 더 이상 밭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슈네호란은 Prokritee의 수공예 종이 제작 회사인 조바파(Jobarpar)기업에 취직했다. 이제 조바파에서 근무한 지 5년 되었다.

슈네호란은 조바파기업에서 돈(약 70달러)을 빌려 소를 샀다. 소는 음식과 동시에 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로 간주된다. 슈네호란 가족은 소젖을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소똥으로 연료 패티도 만들어 아궁이에 쓸 땀감을 사거나, 땀감을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되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슈네호란은 자바파에서 일하게 된 점을 고맙게 생각하며 계속 Prokritee를 위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어한다.



홍콩의 페어서클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사람들을 돕기:
공정무역



페어 서클(Fair Circle)은 Hong Kong Fair Trade Power의 소매점이자 브랜드로, 홍콩과 중국의 공정무역을 옹호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페어 서클은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공정무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페어 서클의 주요 업무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와 농부 보호: 생산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보장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상호협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지원과 혜택을 증진시킨다.

책임 소비: 윤리적 소비를 통해 사회·환경 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하고, 소비가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페어 서클은 홍콩의 공정무역을 확대하고 현지화하며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무역 만찬이라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커피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사람들을 돕기:
공정무역

아름다운커피

아름다운가게 공정무역사업처인 “아름다운커피(BeautifulCoffee)”의 네팔 공정무역 커피 브랜드 ‘히말라야의 선물 (Gift of Himalayas)’은 한국 커피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아름다운커피 매출의 2%는 생산자의 설비와 인프라와 같은 미래 투자개발기금으로 쓰인다. 아름다운커피는 대중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첫 커피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아름다운 커피는 페루와 우간다 산 공정무역커피 및 초콜릿 등 제품을 다양화했다.



www.beautifulcoffee.org

공정무역 성공 사례와 모범 사례는 수백만 개에 달한다. 지난 수년간 공정무역이 가진 상당한 영향력이 증명되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 특히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공정무역 제품 시장은 더 이상 북반구 지역의 국가(유럽과 미국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수도 활발하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 대륙의 각국 정부도 공정무역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공정무역운영위원회 설립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앨버타,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공정무역 관련 법 비준 등)



북부 국가의 공정무역 운동은 비식품 부문
소매업 매출이 2009년 기준 약 2억 8,570만
유로 규모의 네트워크로 성장했다.(식품 부문
매출은 2009년 기준 약 3.4억 유로)
이는 남반구 국가(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의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무역 통계자료집 2010 DAWS/pdf, 국제공정무역(Fairtrade International) 2011





우리가 전하는 **공정무역**의 메시지

공정무역은

빈곤을 타파하고,
아동 근로와 강제 노동 근절하며,
양성 평등 옹호하고,
지속가능성과 역량 강화 지원하며,
환경 보호하고,
무역 평등권 촉진하며,
보건과 교육 기회 제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글로벌 사회적경제의 성장이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다

강력한 글로벌 사회적 경제 구축



연락처:

세계공정무역기구 아시아지부

info@wfto-asia.com

전화: + 63 (02) 3849815